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ing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the Republic of Korea

정 은 희 (EunHee Chung)**

차 미 경 (Mikyeong Cha)***

초 록

본 연구는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바탕으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입법지원조직 소속 이용자 20명을 심층 인터뷰하였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와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서비스 개선분야에서는 해외입법사례 정보 요구 및 정책정보의 보완에 대한 요구 그리고 홍보가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였다. 시스템 개선분야에서는 외국법률정보를 중심으로 법률정보시스템의 서비스인지를 높이는 방안과 입법지원조직마다 차별화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the ways of improving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s in the National Assembly Library based on the information needs of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arising from the legislation process done by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For the purpose, 20 users of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s were interviewed in depth.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results, the study suggested the improvement proposals in the areas of services and system. Service improvement reflected the information needs of overseas legislative cases, the need for supplementing policy information, and the areas that need to be promoted. Second, in the area of system improvement, it was proposed to raise the service awareness of the legal information system centered on foreign legal information and to operate personalized service that can provide differentiated information services for each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키워드: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입법정보, 입법지원조직, 정보요구

National Assembly Library, Legislative Information Service, Legislative Information,
National Assembly legislation support organization, Information needs

* 본 논문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20.2)을 축약·보완한 것임.

** 국회도서관 서기관(chungen@nanet.go.kr) (제1저자)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ha@ewha.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0년 2월 20일 논문심사일자 : 2020년 3월 6일 게재확정일자 : 2020년 3월 16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1): 311-335, 202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1.31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헌법은 권력분립을 기반으로 하여 입법권을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부여하고 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입법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민의를 살피 모든 국민들이 국가에 의하여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공평과 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좋은 법률을 만들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본연의 입법기능을 행사할 때 국민의 의사를 이해하고 존중하여 이를 법안에 담아야 하는 사명이 있다.

입법과정은 법을 정립하는 실천의 과정으로, 입법 목표의 선정으로부터 법안의 제출, 나아가서는 심의·의결에 이르기까지 입법의 진전이 그때마다의 정치나 사회의 움직임에 대응하여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통이다(박영도 2008). 최근 정치,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의 이슈들이 다차원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는 의원입법 건수의 증가와 입법지원조직의 확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의원 입법 건수는 15대 국회에는 1,144건에 불과했으나 18대 국회에는 12,220건, 20대 국회인 2019년 9월 24일 현재, 20,923건으로 23년 동안 거의 18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의안정보시스템 2019). 또한 국회의원 의석수는 15대 국회 299석에서 20대 국회는 300석으로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대한민국 국회 2019)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정원 65명에서 2016년 126명으로 93.8% 증가(국회입법조사처 2019)하였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03년 정원 92명에서 2017년 138명으로 50%가 증가(국

회예산정책처 2019)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입법지원조직의 역할이 큰 폭으로 증가되었다.

입법정보서비스의 기본적인 목적은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보요구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이다. 국회도서관의 정보서비스도 입법활동 지원을 목표로 6백만 책이 넘는 소장자료와 2억 2천만 면이 넘는 방대한 원문자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 개인 맞춤형 서비스인 의회법률정보회답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의 핵심 입법지원서비스로서 인적자원서비스인 휴먼 네트워크시스템과 함께 전문가에 기반한 입법정보서비스이다. 국회의원 정책자료나 국회법률도서관, 국회·지방의회 의정정보, 국회기록정보서비스도 국회도서관이 입법정보로 제공하는 대표적인 의정콘텐츠이다. 최근에는 국회 내·외부 자료를 분석해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아르고스(Argos)서비스를 개시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대한 입법정보서비스들이 이용자의 요구사항이나 입법지원조직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의회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등 주제분야마다 개별시스템을 개발하여 다소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가 의정활동에 유용한 정보로 이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회도서관은 연구대상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었고 입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법지원조직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조사

분석하여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2 선행연구

의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연구를 정리하면 입법과정에서 입법기관의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한 연구, 입법과정의 관점에서 입법정보의 흐름에 관한 연구, 입법정보원의 품질에 대한 연구, 입법지원기관의 전문성을 다룬 연구 등이 있다.

먼저 입법과정에서 입법기관의 정보이용행태를 조사한 선행연구는 국내와 해외에서 각 2편 정도씩 확인된다. 국내연구 중 박영희(2006)는 입법과정에서 정보이용행태의 상이성을 야기하는 변인을 찾는 것이 입법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모색의 핵심요소로 판단했다. 오동근 외(2009)는 국회도서관의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입법관련 종사자와 일반이용자를 비교하여 이용행태 및 만족도를 분석하였다. 해외연구 중 Bradley(1980)는 입법자들은 서로 다른 정보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원을 이용하려는 동기를 부여받는다 고 지적하면서 정보원 선정에 있어서 상호보완성의 방식은 입법정보 개혁의 형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Dodson, Geary, and Brownson(2015)는 정책입안자는 정보수집과정에서 적시성, 접근가능성, 최신성, 정확성, 편견없는 정보 등을 요구하며 정보제공자들은 정책입안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정보소통과 국가정책입안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입법과정의 관점에서 입법정보의 흐름에 관한 연구는 주로 해외연구에서 찾아볼 수 있었는데 Sabatier와 Whiteman(1985)의 연구는 입법 의사결정에 있어서 입법정보 흐름에 주목하고 정책정보의 전달과정에서 입법전문가와 의회 직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Marcella 외(2007)의 연구에서는 입법과정의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유형의 정보나 문서가 진화적 방식으로 여러 단계에서 필요하며 정보는 단계에 따라 포괄적 정보, 구체적이고 집중적인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서비스 전략을 개발할 때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메커니즘이 요구된다고 지적하였다.

입법정보원의 만족도에 관한 국내연구에서 홍기철(2002)은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기대와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정보의 최신성, 정보의 양, 정보의 다양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광승진 외(2011)은 ISA분석을 통해 국회전자도서관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항목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최신성이며 시스템 품질에서는 검색의 정확성으로 나타났다. 해외연구에서 Frantzich(1979)는 민주적인 입법부의 기능을 위해 정보가 매우 중요하며 국회의원은 이상적으로 완전하고, 정확하며, 시기적절하고, 목적에 적합하며, 때로는 기밀인 정보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Pelizzo 외(2004)의 연구는 의회의 정보제공기관들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그들이 가진 자원의 기능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완벽한 정보 출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 국내 정보원 개발과 정보의 다원화 및 비당파적 정보원 추진이라는 정책적 처방을 제시하였다.

Watt(2010)의 연구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입법권자는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복잡성에 직면하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에 입각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반인 무한 합리성의 모델은 실행될 수 없고 대신에 균형 합리성이라는 개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Petty 외(2018)의 연구에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정보품질기준의 세 가지 속성인 관련성, 신뢰성, 정당성(Relevance, Credibility, Legitimacy, RCL)을 충족해야 정책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품질기준이 입법 의사결정자의 직관적 판단과 추론 및 지식 전달을 위한 경험적 도구로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입법지원기관의 전문성과 관련된 연구로는 홍완식(2008), 김민경(2014) 정극원(2015)의 연구에서 의원입법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회내 입법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입법과정과 입법정보

2.1 의원입법과정에서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2.1.1 의원입법 준비단계

입법권자인 개별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입안하기 위해 입법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행하는 작업은 입법의 기초가 되는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입법 필요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입법 준비 단계는 국회법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닌 비규범적 행위이긴 하지만 민의수렴을 통해 입법과정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첫 단계인 만큼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의원입법과정에서 입법을 형성하는 단계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입법지원조직은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예산정책처 등이 있다. 국회의원 보좌진의 역할은 의원실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정책과 입법을 담당하는 정책담당 보좌진과 선거 및 지역구 관리를 담당하는 정무분야 보좌진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국회의원 비서 중에서 정보수집·조사 업무를 하는 것은 주로 정책담당비서이다. 그들은 입법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입법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간다(정극원 2015).

국회도서관은 의회서비스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의회정보실과 법률정보실을 두고 있다. 주요 기능은 의회정보의 검색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의회정보 관련 자료 발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국외자료와 법률정보의 조사·번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등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3월 25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설립된 국회의 전문적인 입법·정책 조사분석기관이다. 국회법은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하여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입법정보서비스와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법에 따라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기능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의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비용추계 제도 관련 분석 및 연구, 재정지출 및 수입·재정수지·국가채부의 추계 및 전망 등이다.

2.1.2 의원입법 기초단계

입법 사안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법안을 기초하는 단계로 넘어간다. 우선 법안 개요를 작성하고, 그것을 토대로 하여 구체적인 조문을 작성하는 작업은 입법작업의 뼈대라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는 입법지원조직이 본격적으로 역할을 하는 단계라 할 수 있다(정극원 2015).

의원입법과정에서 법안의 성안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입법지원조직은 국회사무처 소속의 법제실이다. 주요 기능은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에 대한 분석·평가, 국내외의 법제에 관한 연구, 그 밖에 국회의원의 법제활동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2.1.3 의원입법 심의단계

일반적으로 법률안이 일단 의회에 제출 및 발의되면 심의절차가 개시된다. 법률안의 심의절차는 그 자체로 매우 복잡한 타협과 결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김종철 외 2017). 국회법은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입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위원과 필요한 공무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기능은 법안과 관련하여 소관안전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할 때 먼저 그 취지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當否)에 관한 일반적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과 축조심사 및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국회법 제58조 제1항).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위원회 입법활동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검토하여 그 타당성 여부 내지 문제점과 대안 등을 제시하는 법률안에 대한 분석보고서로 볼 수 있다(임성근 2013). 따라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들의 대체토론 내지 소위원회의 심사, 당해 법률안의 수정 여부 등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안병욱 2016).

의원입법과정에서 입법지원조직별 기능은 <표 1>과 같다.

2.2 입법정보와 의회도서관

2.2.1 입법정보의 개념과 유형

입법정보는 입법부의 활동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의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처방을 만들어 내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다양한 정치적 배경과 선거구, 시민단체로부터의 우려와 기대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이는 정책결정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정보유형에 대한 요구와 활동을 식별하고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입법정보의 유형은 내용에 따라 사실정보, 분석정보(박영희 2006), 정보의 성격에 따라 정책정보, 정치정보, 절차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Maisel 1981; Webber 1987; Daviter 2015). 입법정보를 내부정보원과 외부정보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Maisel 1981). 또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활용의 형태에 따라 도구적 측면에서의 정보활용, 개념적 측면에서의 정보활용, 정치적 측면에서의 정보활용으로 나누기도 한다(송운석 1996). 입법정보 유형은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의원입법 단계별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및 필요 정보

구분	기능	필요 정보	입법단계
국회의원 보좌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지원(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법의 기초가 되는 정보	입법 준비단계
국회 도서관	의회 및 법률 정보의 조사·회답·제공(국회도서관법 제2조)	▶ 국내외 의회 및 법률 사례 정보	
국회입법 조사처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 입법 및 정책 사항의 조사·연구에 필요한 정보	
국회예산 정책처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국회예산정책처법 제2조)	▶ 법안비용추계에 필요한 정보	
↓			
국회 법제실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청한 법률안의 입안 및 검토(국회사무처 직제 제7조)	▶ 법안 기초에 필요한 정보	입법 기초단계
↓			
위원회	의안과 청원등의 심사, 국정감사, 국정조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수행(국회법 제42조)	▶ 법안 심사에 필요한 정보	입법 심사단계

〈표 2〉 입법정보 유형

구분	내용	
내용별	사실정보	법률의 조문, 통계자료, 신문기사 등 주로 도서관에서 검색을 거쳐 제공하는 정보
	분석정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사실정보를 기초로 하여 정부예산, 주요정책, 법률안과 관련한 문제점, 효과, 장단점, 전망 등을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작성한 정보
성격별	정책정보	정책 현안에 관한 본질적인 정보, 정책문제의 원인과 영향, 제안 법률안에 내재된 특성이나 예산의 영향, 특정지역구의 사회전반에 있어서의 법률안의 영향에 관한 정보
	정치정보	정책 현안에 관한 정치 행위자들의 입장이나 지역구와 관련하여 계류된 법률안의 영향에 관한 정보
	절차정보	제안된 법률의 상태,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활동계획, 의회규칙 등에 관한 정보
출처별	내부	개인 보좌직원, 동료의원, 각종 의회 내 지원조직, 정당의 정책연구위원
	외부	행정부, 주 또는 지방정부, 로비스트, 언론매체, 지역구, 대학 등

2.2.2 입법정보 품질

의사결정과정은 공식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이르게 하는 조치나 절차의 과정이다. 합리적인 정치적 결정은 포괄적인 정보수집 및 분석을 통해서만 내려질 수 있으므로 정책결정의 품질은 이용 가능한 정보의 품질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Marcella, Carcary, and Baxter 1999). 입법과정의 의회의 대중적 정당성을 확장하고 갱

신하는 전략이라면, 입법정보는 지식기반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높은 품질의 정보수준을 요구한다. 입법과정의 품질은 실질적인 균형, 다양성, 양심, 그리고 동등한 배려라는 특정 조건에 달려 있으나, 이보다 우선하는 첫 번째 조건은 정보이며 입법 참여자가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합리적인 정확한 정보에의 접근 정도가 입법심회의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Fishkin 2009).

의사결정 및 입법조치에서 정보사용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건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통적인 정보품질 속성으로 관련성, 신뢰성, 정당성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가 정책의사결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실행 가능한 지식으로 사용된다고 하였다(Cash et al, 2002; Meinke et al, 2006; Petty et al, 2018). 관련성은 고려대상에 대한 관계의 정도 또는 의사결정자의 선택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신뢰성은 정보의 출처와 관련이 있다. 정당성은 이해당사자의 견해, 가치 등이 편향되지 않은 시스템에서 정보가 생성되는 정도에 관한 정보의 가치로 간주된다.

2.2.3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본 연구에서는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개념을 국회 입법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 시스템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

용하였다. 입법정보서비스는 <표 3>과 같이 최신 이슈를 다룬 현안정보와 국회도서관 장서개발정책에 근거한 의회, 법률, 학술, 공공정책정보, 의원실 요청에 따른 회답서비스를 위한 전문가 맞춤형 정보, 전문가를 연결해주는 인적자원 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입법지원조직 정보요구 분석

3.1 조사 설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가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에 맞추어 국회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의원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지원조직 전체 624명 중 입법관련 업무수행 경험이 2년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20인을 표집하였다. 모집단은 <표 4>와 같다.

<표 3>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주요 내용

구분		제공 정보
현안	지능형 의회정보 융합분석시스템 'Argos'(아르고스)	데이터분석 기반의 의정활동 지원 시스템 뉴스와 소셜미디어에서 입법과제 및 정책현안을 발굴하여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맞춤형	의회정보회답서비스 법률정보회답서비스	국내외 정책현황 등을 조사·정리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번역서비스 포함) 국내외 입법사례, 법률정보 등을 조사·정리하여 제공하는 맞춤형 서비스(번역서비스 포함)
의회	의회정보서비스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회의록, 외국정책사례, 팩트북, 지방의회의정정보,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등
	국회기록정보서비스	국회의장단 구술기록, 국회기록, 국회사 연표 등
법률	법률정보서비스	법령·판례, 외국법률번역DB, 법률쟁점DB, 법률문헌 등
정책	국회전자도서관	공공정책정보
학술	국회전자도서관	도서, 학술논문, 전자자료, 공공정책자료, 외부기관 소장자료, WebDB(의회, 법률, 학술) ※ 전자도서관에서는 의회정보(국회의원정책자료, 국회회의록, 팩트북 등)와 법률정보(외국법률번역DB, 법률문헌), 공공정책정보, 휴먼네트워크가 통합검색됨
전문가	국회휴먼 네트워크	국회의원 및 각 분야 전문가의 인적자원 정보

출처: 국회전자도서관(2019)

〈표 4〉 심층인터뷰 대상 모집단

입법지원조직		대상자수
입법준비단계	국회의원실 정책담당 보좌관	300명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 조사관	15명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78명
	국회예산정책처 의안소요비용 추계업무 담당 분석관	26명
입법기초단계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53명
입법심의단계	위원회의 입법조사관	152명
합계		624명

인터뷰 대상자의 선정은 각 기관별로 편의추출(convenience sampling) 방식을 통해 전화로 면담에 응할 의사가 있는지를 물은 후 허락한 경우에 한하여 1:1 면담을 실시하였고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을 활용하여 면

담 대상자를 추천받아 총 20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배경은 〈표 5〉와 같다.

질문지는 입법과정에서 정보가 필요한 업무, 입법정보 유형별 정보요구, 입법정보 출처별 정보요구, 정보원의 만족도, 국회도서관 입법정

〈표 5〉 인터뷰 참여자 특성

소속기관	직위	근무경력	대상자
국회의원실	보좌관(정책담당)	20년	A1
	보좌관(정책담당)	10년 6개월	A2
	보좌관(정책담당)	17년	A3
	보좌관(정책담당)	20년	A4
	보좌관(정책담당)	15년	A5
	보좌관(정책담당)	8년	A6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15년	B1
	해외자료조사관	12년 9개월	B2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16년	C1
	입법조사관	12년	C2
	입법조사관	3년	C3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6년	D1
	서기관	2년 8개월	D2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	5년	E1
	법제관	2년 4개월	E2
	법제관	2년 6개월	E3
상임위원회	입법조사관	2년	F1
	입법조사관	2년	F2
	입법조사관	2년 6개월	F3
	입법조사관	2년 6개월	F4

보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면담자 기초정보 등 총 6개 영역의 18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지의 기본틀은 유럽의회문서센터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탐구한 Marcella 외(2007)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질문지의 세부영역으로 제2영역인 입법정보 유형별 분류기준은 박영희(2006)의 연구에서 제시한 내용별, 성격별, 출처별 기준을 따랐다. 제3영역의 입법정보 출처별 정보요구에서는 내부정보원인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와 국회도서관 이외의 외부정보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정보원의 주제분야는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제공 분야인 의회정보, 법률정보, 공공정책정보, 학술정보, 맞춤형서비스, 전문가서비스, 현안정보를 기준으로 하였다. 제4영역인 정보원의 품질을 묻는 질문은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정보품질기준을 제시한 US. Congress(1977), Cuninghame(2009), Frantzich(1979), Sabatier(1985), Petty 외(2018) 등의 연구를 참고로 구성하였다.

3.2 분석 결과

3.2.1 정보 유형

입법정보 유형별 정보요구 현황은 <표 6>에

서처럼 사실정보와 정책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분석정보, 정치정보, 절차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의원실은 입법준비단계에서 기본적으로 국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여론, 민원 등의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정보와 정부 측 정책정보, 정치적 주장을 위한 정치정보 등 사안의 모든 측면을 광범위하게 다루려는 경향이 있었다. 국회도서관은 해외입법 및 정책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정보와 정책정보 위주로 활용하고, 국회예산정책처도 마찬가지로 사실정보와 정책정보, 국회입법조사처는 사실정보에 기반한 분석정보, 정치정보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입법준비단계에 관여하는 모든 참여자의 정보유형별 선호 비중을 종합해보면 내용별로 사실정보와 분석정보, 성격별로 정책정보, 정치정보를 선호하는 정보유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안의 성안을 담당하는 국회법제실에서는 의원실이 법안준비과정에서 조사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때문에 선호하는 정보유형이 의원실과 유사하지만 사실관계 및 법의 체계정합성 확인을 위해 사실정보에서 통계, 백서 등의 비

<표 6> 입법지원조직의 입법정보 유형별 정보요구현황

구분	정보유형(내용별)		정보유형(성격별)		
	사실정보	분석정보	정책정보	정치정보	절차정보
국회의원실	○	○	○	○	
국회도서관	○		○		
국회입법조사처	○	○	○	○	○
국회예산정책처	○		○	○	○
국회법제실	○	○	○		
위원회	○	○	○	○	

중이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다.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회는 정책정보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외 행정부 주장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사실정보, 분석정보, 정치정보 등을 참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안을 발의하려면 해외정책이나 입법사례도 조사하고 외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점이 부족한지 최근 몇 년간 연혁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법안을 준비해야하니까 입법 준비단계에서 사실정보와 정책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1, 국회의원 보좌관]

“기초자료를 토대로 의원실 의견 반영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통계와 특정 사건의 변화추이는 사실 현황조사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D1, 국회법제실 법제관]

“공식적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위해서는 근거로 뒷받침되는 사실정보가 중요하죠. 검토보고에 사실정보를 알려주면 사람들마다 고유한 판단이 타당성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법안이 발의되면 행정부의 의견과 자료를 참고하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부 자

료가 정확하다라고하기 보다는 그쪽에서 책임 있게 작성한 거라는 것,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에서 나온 자료라는 것이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는 거죠.” [E2, 위원회 입법조사관]

3.2.2 국회도서관 내/외부 정보원의 이용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와 외부정보원의 이용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입법지원조직 소속 직원들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하는 정보는 현안정보, 맞춤형서비스, 의회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전문가정보, 기타 정치적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등으로 국회도서관이 입법정보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분야와 대부분 일치하였다. <표 7>을 보면 입법지원기관 별로 내·외부정보원의 선호경향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보원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와 외부정보원을 동시에 이용하는 정보원은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에서 두드러졌다. 국회도서관에서 입법정보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정보원에만 의존하는 경우는 현안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전문가정보에서 나타났다. 기

<표 7> 입법지원조직의 입법정보 출처별 정보요구현황

구분	현안정보		맞춤형 서비스		의회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전문가정보		기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내부	외부
국회의원실		○	○		○				○	○	○		○	○		○
국회도서관	○						○	○		○	○	○				
국회입법조사처					○		○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	○						○
국회법제실		○	○		○		○	○	○	○	○	○				
위원회		○			○		○	○	○	○	○	○		○		○

타에 속한 정보는 주로 당론이나, 지역구, 정당 정책위원, 이해관계자나 시민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 등의 정치정보가 포함된다.

3.2.3 입법지원조직별 특징

국회의원 보좌진이 도서관을 통해 이용하는 정보는 맞춤형서비스, 의회정보서비스, 정책정보, 학술정보, 전문가정보 등이었다. 의원요청에 따라 법안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제공하는 맞춤형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독점적인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의원실에서 활용하는 도서관 서비스 중에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의회정보서비스도 의원실에서 이용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은 국회의원정책자료, 팩트북, 국회의원·입법부보도자료, 국회회의록 등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다. 의원실에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외부정보원은 현안정보, 정책정보, 전문가정보, 기타 등의 분야로 조사되었다. 입법의 토대가 되는 현안정보는 의원실에서 활용비중이 가장 컸다. 사회적 이슈나 민원, 이해관계자, 정부 측 의견이나 보도자료 등 의견수렴 대상은 폭넓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회적 이슈 등의 현안은 대체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접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책정보는 국내외 정부기관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요청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이나 교수 등의 전문가도 외부정보원을 통해 조사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맞춤형서비스와 전자도서관 정보들은 국회도서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죠.” [A6, 국회의원 보좌관]

“팩트북이나 국회의원정책자료는 시의성 있는 주제에 대해 전문성 있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A5,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도서관에서 의회법률정보회답서비스를 위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 정보서비스는 현안정보, 법률정보, 학술정보 등이었다. 외국법률조사에는 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법률관련 상용WebDB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으며, 법률정보서비스에서는 외국법률번역DB와 법률문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정보는 전반적인 기초자료 조사에 활용하고 있었다. 외국 법제도나 정책 등의 사례조사업무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업무와 관련하여 외부정보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었다. 집중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법률, 정책, 학술 분야였다. 정책영역의 정보를 제공하는 해외 정부사이트나 싱크탱크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었고 학술정보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중요한 정보원으로 평가했다.

“법률회답서비스를 위한 업무에서는 Hein Online, Westlaw 등과 같은 WebDB 이용도가 매우 높아요. 최근의 법률정보 수요를 파악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외국법률번역DB도 많이 활용하는 편이죠. 국회도서관의 독자적인 서비스로 외국법률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서비스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B1, 국회도서관 법률자료조사관]

“해외사례조사에서는 거의 인터넷으로 정부사이트나 싱크탱크 활용하는 편입니다.” [B2,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를 폭넓고 비중 있게 활용하고 있었다. 가장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정책정보와 학술정보였다. 의회정보에서는 의원실의 정책의도 파악을 위해 의원세미나자료를 활용한다고 대답했다. 법률정보에서는 외국법률번역DB를 유용한 DB로 인식하고 있었고 업데이트에 대한 요구도 가장 많았다. 정책정보는 전자도서관을 이용하기도 하지만 해당 정부기관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정부에 직접 현황자료를 요구하는 편이었다. 학술정보는 구글로 검색하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전문가는 구글 등 외부정보원을 통해 확인하고 섭외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자도서관은 모든 업무에 다 활용합니다. 주로 도서, 전자자료, 공공정책정보 많이 찾아보고 있고, 세미나자료도 찾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전자도서관에서 공공정책정보가 같이 검색이 되어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C1,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우리 업무는 최신데이터가 매우 중요해요. 정부나 국책연구소 같은 곳은 로데이터(rawdata)를 직접 생산하니까 우리에게 줄 수가 있죠. 특히 법안발의와 관련된 회답서비스를 하다보면 정부자료가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C2,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는 의회정보와 학술정보로 조사되었다. 학술정보는 전반적인 기초조사를 위해 이용하는데 특히 WebDB에 있는 국내

외 통계자료나 영문저널 등이 유용하다고 대답했다. 외부정보원의 활용은 정책정보에 집중되어 있었다. 법안비용추계과정에서는 법안이 도입된 배경과 의도한 효과, 최신의 행정통계나 현황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정보를 필수로 보는 편이었고 외부정보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타정보로는 정부나 이해관계자의 세미나·공청회자료가 법안의 향후 진행방향을 정치적으로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전자도서관에서는 전반적인 기초조사, 처음에 놓치는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해외나 국내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봅니다. 그리고 WebDB에 있는 통계자료나 영문저널 등이 pdf로 되어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D1,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

“통계는 행정통계가 가장 최신정보이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요. 늦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가장 최근 내용으로 이용해야 추계 정확도가 높으니까요.” [D2, 국회예산정책처 서기관]

국회법제실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는 정책정보와 학술정보로 조사되었다. 사실현황조사에서 통계나 백서가 특정 사안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 데 용이하고 학술자료는 법안의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대답했다. 의회정보서비스 중에서는 국회의원이 개최한 공청회, 토론회 등의 정보가 법안 성안과정에서 중요한 정보원이라고 평가했다. 법률정보는 법안성안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이고 국회도서관 외국법률번역DB는

관련 법률이 있을 경우 활용하고 있었다. 현안정보, 정책정보, 법률정보는 외부정보원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안이 되는 사안이 법안으로 발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제실에서도 사실관계 확인과 법 개정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안정보를 이용하고 있었고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법률정보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었고, 정책정보도 전자도서관 보다는 해당 분야의 정부기관을 북마크 해놓고 직접 들어가는 편이었다. 현안이 될 경우 대체적으로 정부자료가 발표되기 때문에 정책정보를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사실, 현황조사에서 통계와 특정사건의 변화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데이터나 백서 등 10년치 자료가 필요하다 할 경우 매우 큰 도움을 받습니다.” [D1, 국회법제실 법제관]

“사회적 문제가 있으면 정부자료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자료를 참고하면서 법안을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야가 몇 군데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직접 맡은 분야의 정부기관을 북마크 해놓고 직접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나 백서 등 최신자료는 관련 기관사이트에 직접 가서 보거나 전화로 물어봅니다.” [D2, 국회법제실 법제관]

위원회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는 정책정보와 학술정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회전자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유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학술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세미나, 공청회 자료, 공공정책정보도 유용

한 정보원이지만 정보가 다소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의회정보에서는 국회의원 세미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외부정보원은 정책정보, 법률정보, 현안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정부자료의 이용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정치정보로 간담회, 공청회자료의 이용비중도 큰 편이다. 법안이 발의되면 위원회는 공식적인 절차로 정부에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정보수집에서 정부자료나 정부의견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었다. 전문가에 대해서는 법안심사과정에서 사안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정부부처관계자나 교수 등에 직접 의뢰하기도 한다고 대답했다. 그밖에 이해관계자의 간담회, 공청회 자료도 각 계각층의 의견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현안정보는 법안발의 동기가 언론보도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인터넷으로 뉴스 기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자도서관의 학술정보는 정부의견에 대한 보충자료로서 활용합니다. 정부의견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측면에서의 의견을 제시하여 의원에게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정보활동입니다.” [E1, 위원회 입법조사관]

“행정부자료 수집이 1차로 진행되는 작업입니다. 여기서 충분하다고 하면 사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법안은 거기서 끝내는 경우도 많구요, 비판적으로 봐야할 경우 추가로 정보를 찾아야죠.” [E2, 위원회 입법조사관]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지원조직별 정보이용 특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입법지원조직별 정보이용 특징

구분		정보이용 특징	
의원실	내부	분야	▶ 맞춤형서비스, 의회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전문가정보
		활용이유	▶ 맞춤형서비스와 의회정보는 국회도서관 독점적 서비스로 인식 ▶ 입법배경과 쟁점, 논점 등 종합적 파악에 도움
	외부	분야	▶ 현안정보, 정책정보, 전문가정보, 기타(정치정보 등)
		활용이유	▶ 사회적 이슈와 의견수렴 위한 민원, 이해관계자, 정부 측 의견이나 보도자료 등 활용비중 높음 ▶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각계각층 전문가 조언 활용
국회 도서관	내부	분야	▶ 현안정보, 법률정보, 학술정보
		활용이유	▶ 현안입법, 최근 법률정보 파악 ▶ 학술정보는 전반적인 기초조사에 활용
	외부	분야	▶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활용이유	▶ 외국 법제도나 정책 등 사례조사업무 비중이 높음
국회 입법 조사처	내부	분야	▶ 의회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활용이유	▶ 전자도서관은 모든 업무에 유용. 정책정보가 같이 검색되어서 편리함 ▶ 의회정보는 의원실 정책의도 파악에 용이 ▶ 해외입법사례조사에 외국법률번역DB 유용
	외부	분야	▶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전문가정보
		활용이유	▶ 최신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기관, 국책연구소, 전문가정보 등 이용 ▶ 시간부족 등으로 구글 등 인터넷 검색이 효율적이라고 인식
국회 예산 정책처	내부	분야	▶ 의회정보, 학술정보
		활용이유	▶ 전반적인 기초조사, 국내외 통계조사
	외부	분야	▶ 정책정보, 기타(이해관계자 세미나·공청회 등)
		활용이유	▶ 법안이 도입된 배경과 의도한 효과, 법안의 향후 진행방향을 정치적으로 진단 ▶ 최신의 행정통계나 현황정보 참고 ▶ 관련자료의 신속한 검색
국회 법제실	내부	분야	▶ 맞춤형서비스, 의회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활용이유	▶ 법안의 기초적인 토대 마련 ▶ 특정 사안의 변화추이 참고
	외부	분야	▶ 현안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활용이유	▶ 법안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법 개정 이유 등 파악 ▶ 법률정보는 법안성안과정에서 기본 데이터로 활용 ▶ 현안에 대한 정부측 자료 참고
위원회	내부	분야	▶ 정책정보, 학술정보
		활용이유	▶ 광범위한 정보자원 ▶ 정부의견 검토과정에 활용
	외부	분야	▶ 현안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전문가정보, 기타(이해관계자의 간담회, 공청회 자료)
		활용이유	▶ 법안발의 동기 파악 ▶ 발의법안에 대한 정부자료 및 정부의견 조사 ▶ 각계각층의 의견 파악

3.2.4 만족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는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적시성과 관련성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정보탐색에서 외부정보원을 이용하는 주된 요인은 정보원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었다.

“의회법률정보회답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뢰성 때문이에요. 인터넷에서 찾는 것이 빠르긴 하지만 신뢰성은 담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려도 도서관이나 조사처를 활용하게 되는거죠.” [A2, 국회의원 보좌관]

“정부나 관계기관의 정보는 적시성과 신뢰성면에서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적시성이 좀 아쉽죠.” [A3, 국회의원 보좌관]

“관련성>신뢰성>적시성>객관성>접근성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병렬적이진 않아요. 관련성이 있으면서 신뢰성, 적시성이 높은 자료를 써야하니까요. 도서관자료는 비용추계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런데 WebDB 통계는 아주 유용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D1, 국회입법조사처 추계세제분석관]

적시성은 정보의 신속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이고, 관련성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정보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적시성에서 불만족으로 지적된 분야는 맞춤형서비스, 법률정보(외국법률번역DB), 전자도서관의 학술정보였다. 관련성에서 불만족으로 평가받은 분야도 맞춤형서비스, 법률정보(외국법률번역DB), 전자도서관(학술정보)으로 동일한 분야가 조사되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개선요구사항도 집중적으로 많았던 정보원이다. 외부정보원으로 확장하여 정보를 활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당 분야의 이용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법지원조직별로 공통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정보원인 만큼 향후 개선과제로 주의 깊게 다뤄야 할 분야이다. 입법지원조직별로 정보원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 내용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4. 입법정보서비스 개선방안

본 연구의 목적인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은 인터뷰 참여자들이 제시한 개선과제를 종합하여 <표 10>과 같이 서비스개선분야와 시스템개선분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서비스개선분야는 해외입법정보, 정책정보, 홍보 부분이다. 우선 해외입법정보는 국회의원실,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위원회 등의 해외정책 및 입법사례에 대한 정보요구와 관련이 있다. 국회의원실에서는 맞춤형서비스로 제공되는 입법정보회답서비스의 적시성과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다음으로 정책정보의 보완요구는 입법지원조직에서 공통으로 개선을 요구한 사항이었다. 특히 정부보도자료와 각종 공청회, 세미나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였다. 홍보에 있어서는 국회도서관 정보서비스 중에서 인지도가 낮은 정보원으로 현안정보와 정책정보가 해당된다.

시스템개선분야는 법률정보시스템 개선과 개인화서비스 요구에 대한 부분이다. 시스템 개선과 관련하여 법률정보는 핵심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전자도서관

〈표 9〉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원별 만족도

구분	내부		외부	
	정보원	만족도	정보원	만족도
국회 의원실	맞춤형 서비스	신뢰성, 접근성 만족 적시성, 관련성, 객관성 불만족	언론, 이해관계자, 정부기관	적시성, 관련성, 신뢰성 만족
	의회정보	전반적으로 만족 팩트북은 관련성 아쉬움		
국회 도서관	현안정보	적시성, 접근성 충족 신뢰성, 객관성 불만족	외국 정부기관, 싱크탱크	신뢰성, 객관성, 적시성, 관련성, 접근성 만족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신뢰성, 객관성, 접근성 충족 적시성, 관련성 불만족		
	전자도서관 (학술정보)	WebDB기준 적시성, 관련성 충족 해외사례조사과정에서는 관련성 불만		
국회입법 조사처	의회정보	전반적으로 만족, 적시성만 불만	정부기관, 국책연구소, 학회사이트 등	적시성, 신뢰성, 관련성 충족
	전자도서관 (학술정보)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접근성 충족, 관련성, 적시성 불만		
국회예산 정책처	전자도서관 (학술정보)	신뢰성, 객관성 만족 관련성은 보통	정부기관	관련성, 신뢰성 만족
			인터넷	관련성, 적시성 만족
국회 법제실	전자도서관 (학술정보)	접근성, 객관성 만족 적시성 불만	정부기관	적시성, 신뢰성, 관련성 만족
위원회	전자도서관 (학술정보)	전반적으로 만족, 관련성 보통	정부기관	신뢰성, 객관성, 관련성 만족
			인터넷	적시성 만족

〈표 10〉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개선과제

구분	내용	
서비스	해외입법정보 선제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서비스(의회·법률정보회답서비스) • 외국입법정보(해외정책사례, 해외법률사례)
	정책정보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회정보(국회의원정책자료집) • 정책정보(정부보도자료, 세미나, 공청회자료)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안정보(아르고스), 공공정책정보, 법률정보, 전문가정보(휴먼네트워크)
시스템	법률정보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필요한 정보서비스 정리필요 • 핵심서비스 개발 • 법률분야 전문번역기 도입
	개인화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검색패턴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나만의 페이지 서비스

의 경우는 많은 자료가 통합검색 되어서 편리한 반면 시간이 촉박하여 자료선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소관부처나 관련사이트의 자료만 볼 수 있는 맞춤형정보서비스의 요구가 있었다.

4.1 서비스 개선

4.1.1 해외입법정보의 선제적 제공

해외입법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요구는 법안 준비과정에서 국회의원실, 국회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에서의 요구가 가장 많았고, 법안을 성안하는 국회법제실과 법안을 심사하는 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입법 전 과정에서 언급되었다. 특히 해외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이 의원실에 제공하는 맞춤형서비스와 해외사례, 팩트북, 외국법률번역DB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외부정보원으로서의 보완이나 대체가 어려운 분야이다. 맞춤형서비스 강화는 곧 입법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과정이다.

이에 대해 국회도서관은 사회적이슈가 정치적 현안으로 발의되기 전에 해외사례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현안을 발굴하고 정보이용을 예측하여 해외사례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양적·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산확보와 인력충원이 우선과제이나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서비스 강화를 위한 인력보강과 예산확보를 통해 의회·법률정보회답서비스와 최신입법사례나 정책사례 등의 선제적 서비스가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며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1.2 정책정보 보완

정부보도자료는 국회의원실, 국회예산정책처, 국회법제실에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부보도자료는 정부의 신규 정책의 배경과 개념, 목표 등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정 활동 전반에 대한 브리핑이다. 행정조치의 독특한 내용이나 새로운 활동, 행정조치 이후의 변화나 영향력 같은 내용이 소구 대상이 된다. 정책의 입안이나 진행 사항, 기타 동향이나 현황 보고도 이에 포함된다(홍장선 2014). 국회입법지원조직은 정부보도자료가 정부계획의 출발점이며 예산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의미 있는 정보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국회도서관은 정부보도자료를 수집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보완하여 정책정보 콘텐츠를 보강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공정책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방안을 마련하고 포괄적인 수집을 통해 정부보도자료의 이용활성화 및 국회도서관공공정책정보의 인식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공공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세미나·공청회 자료는 국회의원실, 위원회 등에서 정보요구가 있었다. 세미나·공청회자료는 대중의 의견이 수렴된 정보이고 다양한 시각의 의견을 참고해야 하는 입법지원조직이 유용하게 참고하는 정보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자료는 속보성이 매우 강하고 최신 연구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수집·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각종 집회가 언제 어디서 개최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발행부수도 한정적이며, 비공간 자료이기 때문에 수집하기 어렵

다(윤희운 2012). NGO는 시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정치과정에 투입하는 대변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도묘연 2016). 각계각층의 이해관계자 의견은 입법과정에서 가치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익집단과 손해보는 집단의 예측이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입법정보원이다. 따라서 현재 국회도서관이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취약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세미나·공정회 자료의 수집방안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수집대상기관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등록된(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단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4.1.3 홍보 강화

국회도서관에서 입법정보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정보원 의존도가 높은 정보원은 현안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전문가정보로 조사되었다. 인터뷰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지도 부진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먼저 현안정보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아르고스시스템은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정보원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었다. 정책정보는 전자도서관에서 통합검색이 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었고 만족도에서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법률정보는 외국법률번역DB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즉 법률쟁점서비스, 법률문헌, 법령, 판례 등의 이용도가 낮았다. 전문가정보인 휴먼네트워크도 외부정보원인 인터넷 선호 경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인지도가 낮은 이유도 있었지만 사용 경험에 비추어 인적자원 부족도 원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홍보는 인터뷰 분석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정

보원에 대한 이용도가 높은 입법지원조직별로 세분화하여 차별화된 홍보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정보원 이용에 따른 이점을 구체화하고 홍보 목표를 세우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인지도가 낮은 이유가 단순히 홍보부족인 이유도 있지만 외부의 타 정보원과 비교했을 때 품질이나 정보량에서 더 우수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4.2 시스템 개선

4.2.1 법률정보시스템의 외국법률 인지도 강화

법률정보시스템은 국회도서관의 특화된 법률관련 정보를 통합·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이다. 입법지원을 목적으로 서비스되고 있으나 본 연구의 인터뷰 분석결과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중에서 법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법률정보의 이용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법률정보시스템의 핵심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인터뷰분석결과에서 외국입법사례나 외국법률번역DB 등의 외국법률정보에 대한 정보요구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현재 법률정보시스템에서는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외국법률정보를 중심으로 한 핵심서비스 제공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률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국의 최신법령·판례정보, 최신 외국입법정보, 현안관련 외국입법례 등의 외국법률 관련 유사 정보원들을 '외국법률종합정보'(가칭)로 통합·제공함으로써 가시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외국입법정보서비스 강화를 위해 추가로 확

장해야 할 서비스로는 외국법률의 번역서비스 부분이다. 국회도서관은 의원실 요청에 따라 외국 법률, 주요 정책, 제도 등을 번역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나 번역과 감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해 즉시 서비스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입법부 직원들이 외국법률 등을 참고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빠른 시간안에 해결해야 하는 법률용어의 선정과 번역문제로 조사되었다. 입법과정에서 외국법률 번역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법률정보의 이용도 제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법률 서비스 확대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4.2.2 개인화서비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종 포털 서비스는 모든 지식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는 추세에 있고 이용자들은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환경변화는

서비스 개인화 관점에서 <표 11>과 같이 5가지 사항으로 정의할 수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입법지원기관별 정보이용 요구 분석결과 입법지원조직별로 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 활용 분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정보원에 대한 접근정도 도서관과 외부정보원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심분야와 정보검색패턴이 제각각인 입법지원조직을 대상으로 국회도서관이 보유한 정보만으로 검색결과를 동일한 형태 또는 순위로 제공하는 것은 검색결과에의 만족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선호도와 정보요구를 반영하며 정보환경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이용자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여 검색결과를 최적화시켜줄 수 있는 개인화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화서비스는 사용자가 선호하는 또는 사용자 관심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접근 방법 중 하나이다(한희준 외 2018).

<표 11> 정보환경변화에 따른 개인화서비스 방향성

구분	시사점	방향성
정보와 데이터의 공개·개방 확대	- 활용 가능한 콘텐츠가 보다 풍부하고 다양 - 공개·개방된 콘텐츠의 연계·활용 가능 - 표준화된 방법(API, LOD)으로 연계 가능	구축중심 -> 연계중심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웹에서 개인정보의 수집·활용이 어려워짐 - 웹에서의 개인 프로파일 정보 구축이 어려움	개인정보기반 -> 개인참여기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강화	- 정보의 독점이 아닌 연계·공동활용이 중요 - 협업이 용이 - 커뮤니티의 참여 중요	개인지성 -> 집단지성
콘텐츠의 초대형화	- 큐레이션이 중요 - 주제 기반 정보연계와 통계 분석 중요 - 활용대상 콘텐츠의 다양화와 즉시성 중요	검색중심 -> 분석중심
웹 플랫폼 기술진화	- 디바이스, 웹 브라우저 독립적인 서비스 중요 - 클라우드 환경의 자원활용 중요	웹 포털 -> 웹앱

출처: 최희석 외, 2015. 연구지원 도구의 개인화 서비스 모델 설계, 한국콘텐츠학회 2015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 37-45.

개발방향은 첫 번째, 정보자원의 범위에 외부정보원의 정책정보와 법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다. 정보자원은 국회 내외부에 분산되어 있는 공개·개방된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자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의 범위는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7개 분야, 즉 현안정보, 맞춤형서비스, 의회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학술정보, 전문가정보와 외부정보원은 인터뷰 결과 모든 입법지원조직에서 가장 이용요구가 높았던 정책정보와 법률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정책정보는 국내외 정부기관과 싱크탱크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정책정보의 시의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한다. 법률정보에서는 국내외 법령, 판례, 관보, 의회사이트를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도 키워드 검색에 따라 관련 정부기관의 법령이나 판례가 동시에 검색되고는 있지만 전자도서관과 분리된 국회법률도서관에서 내용을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위해 한 화면에서 구현되도록 하고 관련 외부정보원을 보완하여 검색의 확장과 시의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개인 맞춤형 정보구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개인화서비스는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을 허브로 활용하여 국내외 입법정보자원을 연계하여 제공한다. 정부 및 개인화서비스를 위해 첫 화면은 내가 원하는 분야만 선택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관심분야 설정기능을 구현한다.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에서 제공하는 7개 분야는 이용자에 따라 많이 활용하는 분야를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위치시킬 수 있도

록 한다. 검색결과도 설정한 관심분야의 우선 순위별로 보여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정보들이 우선순위에 따라 앞쪽에 노출되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현재 전자도서관에서 별도의 시스템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안정보시스템인 지능형의회정보융합분석서비스(아르고스)도 개인화서비스 화면에서는 한 화면에 같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한다. 정책정보는 정부기관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기관은 상임위원회 별 소관기관 중심으로 그룹핑 할 수 있고, 또는 정부기관별로도 선택할 수 있다. 정책정보를 첫 화면에서 우선순위로 배열한다면 화면의 가장 윗 상단에서 필요한 정책정보를 바로 이용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의원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요구를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구체화하고 이를 분석하여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입법과정은 지속적인 정보수집과 정교한 대안, 경험적 학습과 적용이 수반된다. 법안을 준비하고, 성안하고 심사하는 전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은 핵심적인 기능이며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정보 측면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에 고스란히 담기기 때문에 정보를 활용하는 과정은 정당하게 입법과정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입법과정별로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합한 정보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 내 입법정보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국회도서관으로서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뷰 분석결과를 근거로 향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서비스 개선분야와 시스템 개선분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첫 번째, 서비스 개선분야는 해외입법정보와 정책정보의 보완, 그리고 홍보 부분이다. 해외입법정보의 개선방안으로는 현안을 발굴하고 정보이용을 예측하여 관련 해외입법사례를 시의성있게 조사한 후 선제적 서비스에 주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부보도자료와 공공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세미나·공청회자료 등 정책정보의 콘텐츠 보강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홍보가 필요한 부분은 현안정보, 법률정보, 정책정보, 전문가정보 등에서 나타났는데

인지도 향상과 더불어 품질이나 정보량에서 우수하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홍보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시스템 개선분야에서는 법률정보시스템의 외국법률 인지도 개선방안과 개인화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법률정보시스템은 시스템 내에 분산되어 있는 유사 정보원들을 외국법률정보를 중심으로 통합·제공함으로써 핵심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개인화서비스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개인화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정보자원의 범위와 관심분야 설정기능을 중심으로 개인화서비스 운영에 관한 기본 방식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제안된 내용은 향후 국회도서관 입법정보서비스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의원입법에 참여하는 입법지원조직의 정보활동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승진 외. 2011. ISA를 적용한 국회전자도서관 품질 평가와 개선방안 수립.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5(3): 327-340.
- 김민경. 2014. 『국회 법률안 통과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법률안 통과소요시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 김종철 외. 2017. 『입법과정의 현대적 재구성(혁신) 방안 연구』.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도묘연. 2016. 정부주도형 및 민간주도형 NGO 네트워크의 규모와 다양성: 충청남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2): 89-118.
- 박영도. 2008. 『입법학 입문』.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 박영희. 2006. 『입법과정에서의 정보이용과 수요예측-16대 및 17대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정책학전공.
- 송운석. 1996.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중개시스템의 역할과 실태: 국회의 입법보조기구를 중심으로.

- 『정책과학연구』, 7: 197-226.
- 안병옥. 2016. 『최신 국회법』. 서울: 초이스디자인.
- 오동근 외. 2009. 국회도서관의 공공기관 및 정부정보 서비스에 대한 입법관련 종사자와 일반이용자의 이용행태와 만족도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235-250.
- 윤희윤. 2012. 『국가문헌 망라적 수집을 위한 출판물 발간현황 분석과 납본·수집 개선방안 연구』. 서울: 국립중앙도서관.
- 임성근. 2013. 『정부 3.0시대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정극원. 2015. 의원입법의 증가에 따른 국회입법지원조직의 효율화 방안. 『공법학연구』, 16(1): 109-134.
- 최희석 외. 2015. 연구지원 도구의 개인화 서비스 모델 설계. 『한국콘텐츠학회 2015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 37-45.
- 한희준 외. 2018. 개인 관심분야 추적기법을 이용한 과학기술정보 개인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3): 5-33.
- 홍기철. 2002. 국회도서관 전자도서관시스템에 대한 이용자의 기대와 만족에 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2): 265-282
- 홍완식. 2008. 『의원입법의 절차적 합리화 방안 - 법률안 제출 이전 단계를 중심으로』. 서울: 국회입법조사처.
- 홍장선. 2014. 『행정PR매뉴얼』.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Bradley, Robert B. 1980. "Motivations in Legislative Information Use."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5(3): 393-406
- Cash, D., W. C. Clark, F. Alcock, N. M. Dickson, N. Eckley, and J. Jäger. 2002. *Saliency, Credibility, Legitimacy and Boundaries: Linking Research, Assessment and Decision Making*.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Cuningham 2009. *Guidelines for Legislative Libraries. IFLA Publication, 140*. Berlin: De Gruyter Saur.
- Daviter, F. 2015. "The Political Use of Knowledge in the Policy Process." *Policy Sci*, 48: 491-505. <https://doi.org/10.1007/s11077-015-9232-y>
- Dodson, Elizabeth A., Nora A. Geary and Ross C. Brownson. 2015. "State Legislators' Sources and Use of Information: Bridging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Policy." *Health Education Research*, 30(6): 840-848. <https://doi.org/10.1093/her/cyv044>
- Fishkin, J. S. 2009. *When the People Speak - Deliberative Democracy and Public Consult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rantzich, Stephen E. 1979. "Computerized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U. S. House of Representative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4(2): 255-280.

- Maisel, Louis Sandy. 1981. "Congressional Information Sources." In J. Cooper and G.C. Mackenzie (Eds.), *The House at Work*.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Marcella, R., G. Baxter, S. Davies, and D. Toornstra. 2007. "The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Seeking Behaviour of the Us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Documentation Centre: A Customer Knowledge Study." *Journal of Documentation*, 63(6): 920-934.
- Marcella, R., I. Carcary, and G. Baxter. 1999. "The Information Needs of United Kingdom Members of the European Parliament (MEPs)." *Library Management*, 20(3): 168-178.
- Meinke, H., R. Nelson, P. Kokic, R. Stone, R. Selvaraju, and W. Baethgen. 2006. "Actionable Climate Knowledge: From Analysis to Synthesis." *Climate Research*, 33: 101-110.
- Pelizzo, R., R. Stapenhurst, and R. Miller. 2004. *Parliamentary Libraries, Institutes and Offices: The Sources of Parliamentary Information*. World Bank Institute.
DOI: <https://doi.org/10.2139/ssrn.1026371>
- Petty, Timothy R., John B. Gongwer, and William Schnabel. 2018. "Bridging Policy and Science Action Boundaries: Information Influences on US Congressional Legislative Key Staff Decision Making in Natural Resources." *Policy Sci*, 51: 77-96.
- Sabatier, P. and D. Whiteman. 1985. "Legislative Decision Making and Substantive Policy Information: Models of Information Flow."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10(3): 395-421.
- U.S. Congress. 1977. *House, Commission on Administrative Review.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d Legislative Management*. Washington, D.C.: USGPO.
- Watt, Iain. 2010. "Members Use of Information and Changing Visions of the Parliamentary Library." *Library Trends*, 58(4): 434-458.
- Webber, David J. 1987. "Factors Influencing Legislators' Use of Policy Information and Implications for Promoting Greater Use." *Policy Studies Review*, 6(4): 666-676.

[웹사이트]

- 국회에산정책처. [online]. [cited 2019.9.24]. <<https://www.nabo.go.kr>>.
- 국회입법조사처. [online]. [cited 2019.9.24]. <<http://nars.go.kr>>.
- 국회전자도서관. [online]. [cited 2019.12.4]. <<https://www.nanet.go.kr/main.do>>.
- 대한민국 국회. [online]. [cited 2019.9.24]. <<http://www.assembly.go.kr>>.
- 의안정보시스템. [online]. [cited 2019.9.24]. <<http://likms.assembly.go.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n, Byung-Ok. 2016. *National Assembly Act*. Seoul: Choice design.
- Choi, Hee-Seok, Ji-Young Park, Hyoung-Seop Shim, Jae-Soo Kim, and Beom-Jong You. 2015. "Design of a Personalized Service Model for Developing Research Support Tool."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8): 37-45.
- Do, Myo Yuen. "Size and Diversity of Government Organized NGO and Private Organized NGO Networks: Focusing on Chungcheongnam-do (Province) Case." *Journal of Korean Politics*, 25(2): 89-118.
- Han, Heejun, Yunsoo Choi, and Sung-Pil Choi. 2018. "A Study on Personaliz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by User Interest Tracking Techniqu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3): 5-33.
- Hong, Jang Sun. 2014. *Administration PR Manual*. Seoul: CommunicationBooks.
- Hong, Ki-Churl. 2002. "A Study of User's Perspective and Satisfaction in National Assembly Library Electronic Library System."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2): 265-282
- Hong, Wan-Sik. 2008. *Procedural Rationalization Plan of the Assembly Legislation - Focusing on the Steps Before the Submission of the Bill*. Seoul: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Jeong, Kuk-Won. 2015. "An Efficient Support Organization for Increasing Legislations by the National Assembly." *Public Law Journal*, 16(1): 109-134.
- Kim, Jong-Cheol, Seung-Hyun Lee, Kye-Il Lee, and Woo-Min Shim. 2017. *A Study on Reconstruction Legislative Process*. Sejong: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Kim, Min Kyung. 2014.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the National Assembly Passed Legislation-Around the Time of Passing Legislation*. M.A.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 Kwak, Seung-Jin, Young-Mi Jung, Jinmook Kim, Kyung-Jae Bae, and Mi-Kyung Im. 2011.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Digital Library by Applying ISA(Importance-Satisfaction Analysi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5(3): 327-340.
- Lim, Sung Geun. 2013. *A Study on Measures for Bolstering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Functions in the Government 3.0 Era*. Seoul: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 Oh, Dong-Geun, Byung-Ho Yoon, Ji-Suk Yeo, Ju-Rae Kim, Sang-Hoo Park, and Eul-Soon Ma. 2009. "A Study on the User Behaviors and Satisfaction of Legislative Employees and Other Library Users for the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 of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235-250.
- Park, Young-Do. 2008. *The Introduction of Science of Legislation*. Seoul: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Park, Younghee. 2006. *Patterns and Demand Forecasting of Information Use in Legislative Process*. Ph. D. dis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 Song, Unsuik. 1996. "The Role and Actual Condition of the Information Mediator System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Focusing on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Journal of Policy Sciences*, 7: 197-226.
- Yoon, Hee-Yoon. 2012. *A Study on Analysis of Publication Status and Improving Methods of Legal Deposit Collection for the Comprehensive Acquisition of the National Collection*. Seoul: National Library of Korea.

[Web sites]

- Bill Information. [online]. [cited 2019.9.24]. <<http://likms.assembly.go.kr>>.
-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online]. [cited 2019.9.24]. <<https://www.nabo.go.kr>>.
-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online]. [cited 2019.9.24]. <<http://nars.go.kr>>.
- National Assembly Library. [online]. [cited 2019.12.4]. <<https://www.nanet.go.kr/main.do>>.
-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online]. [cited 2019.9.24]. <<http://www.assembly.go.kr>>.